**다이쇼시대**

다이쇼 연간(1912년 ~ 1926년)을 다이쇼 시대라고 한다. 다이쇼 시대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다. 이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한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귀중한 유산이 되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러일전쟁](http://100.naver.com/100.nhn?docid=54510) 때부터 [다이쇼 천황](http://100.naver.com/100.nhn?docid=483488)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http://100.naver.com/100.nhn?docid=863843)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http://100.naver.com/100.nhn?docid=84867)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http://100.naver.com/100.nhn?docid=23308)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 다이쇼 천황

-**다이쇼 천황**(大正天皇)은 [일본](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의 제123대 [천황](http://ko.wikipedia.org/wiki/%EC%B2%9C%ED%99%A9)[1879년](http://ko.wikipedia.org/wiki/1879%EB%85%84) [8월 31일](http://ko.wikipedia.org/wiki/8%EC%9B%94_31%EC%9D%BC), [도쿄](http://ko.wikipedia.org/wiki/%EB%8F%84%EC%BF%84)의 아오야마(靑山) 궁전에서 메이지(明治) 천황과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柳原愛子)의 소생으로 태어났다. 생후 습진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이듬해까지 무거운 병을 앓았다. [메이지 천황](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C%A7%80_%EC%B2%9C%ED%99%A9)은 정실 하루코(美子) 황후 사이에서의 자녀가 없는 데다가 측실 소생의 4명의 자녀까지 잇따라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후에 황태자에 올랐으며 어릴 적에는 하루코 황후의 친자식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가 야나기하라 나루코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린시절[1880년](http://ko.wikipedia.org/wiki/1880%EB%85%84), 나카야마 다다요시(中山忠敬)의 양자가 되었으나 [1885년](http://ko.wikipedia.org/wiki/1885%EB%85%84) 3월에 다시 아오야마로 돌아와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87년](http://ko.wikipedia.org/wiki/1887%EB%85%84), 하루코 황후의 정식 양자가 되었고 같은 해 9월, 학습원(學習院)에 입학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유급되는 일이 있었으며 학습원의 어려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1889년](http://ko.wikipedia.org/wiki/1889%EB%85%84), 아타미(熱海)에서 정양을 하기도 하였다. [1889년](http://ko.wikipedia.org/wiki/1889%EB%85%84), 입태자례(立太子禮)를 치렀으나 이수계의 교과를 어려워하는 등 학습원에서의 학습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자 결국 중퇴를 선택, 아카사카(赤坂) 별궁에서 [프랑스어](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EC%96%B4), [국학](http://ko.wikipedia.org/wiki/%EA%B5%AD%ED%95%99), [한문](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C%B8) 등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이도 곧 여의치 않았으므로 메이지 천황은 새로운 동궁보도(東宮輔導)에 방계 왕족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토(有栖川宮威仁)를 임명하였고 이후 요시히토는 다케히토를 벗 삼아 학업을 계속하였다.

결혼, 황태자를 빨리 결혼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00년](http://ko.wikipedia.org/wiki/1900%EB%85%84) [5월 10일](http://ko.wikipedia.org/wiki/5%EC%9B%94_10%EC%9D%BC), 요시히토는 화족 구조 [사다코](http://ko.wikipedia.org/wiki/%EC%82%AC%EB%8B%A4%EC%BD%94)(九條節子)와 결혼하였으며 이후 좋지 않았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갔다.

즉위-[1912년](http://ko.wikipedia.org/wiki/1912%EB%85%84) [7월 30일](http://ko.wikipedia.org/wiki/7%EC%9B%94_30%EC%9D%BC), 메이지 천황이 죽자 황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에도 병약함과 생각한 것을 곧바로 언동에 나타내는 버릇 등으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란 인식이 정계를 비롯한 일본 각계로 퍼져 나갔으며 때문에 후에는 **존재감이 없는 천황**(影の薄い天皇)으로 불렸다. [1917년](http://ko.wikipedia.org/wiki/1917%EB%85%84)경부터 공무로 받은 스트레스와 심로 등이 겹쳐 다시 건강이 악화, 급기야 [1919년](http://ko.wikipedia.org/wiki/1919%EB%85%84)에는 황태자 [히로히토](http://ko.wikipedia.org/wiki/%EC%87%BC%EC%99%80_%EC%B2%9C%ED%99%A9)가 섭정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사망-[1926년](http://ko.wikipedia.org/wiki/1926%EB%85%84)의 [크리스마스](http://ko.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8A%A4%EB%A7%88%EC%8A%A4) 새벽 1시 25분 경, [하야마](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95%98%EC%95%BC%EB%A7%88&action=edit&redlink=1)(葉山) 황실 별장에서 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심장마비](http://ko.wikipedia.org/wiki/%EC%8B%AC%EC%9E%A5%EB%A7%88%EB%B9%84)로 사망하였다. 천황의 유해는 전례를 깨고 영구차로 도쿄 서쪽 근교의 [하치오지 시](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B9%98%EC%98%A4%EC%A7%80_%EC%8B%9C)에 있는 타마 어릉에 매장되었다.

**Ⅰ. 다이쇼 정변**

일본인들 사이에 근대화의 영주(英主)로 추앙 받는 메이지 천황이 한·일 합방의 숙원을 달성한 뒤 2년 만에 죽고, 1912년 7월 다이쇼가 즉위했다. 메이지 말기부터 시작된 헌정 옹호 운동으로 이때가 되면 정당 활동의 틀이 잡혀가고, 미숙하나마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본사에서는 다이쇼시대 12~13년간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부른다.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고 대륙 침략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비증강을 멈출 줄 몰랐다. 당시 육·해군 대신은 현역으로 보임하도록 17억 엔이란 전쟁 비용은 상당 기간 국민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되어 있었는데, 군부는 내각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걸핏하면 사직서를 직접 천황에게 제출하여 내각을 사퇴하도록 하고, 신임대신의 추천을 보이콧하여 내각을 구성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연유로 1912년 제2차 사이온지 긴모치 내각이 사퇴하자 조슈 군벌의 대부이자 정계의 원로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심복인 내대신(內大臣) 가쓰라 다로에게 조칙을 내려 수상에 임명되도록 공작하였다. 조칙은 천황이 내리는 것이지만 어린 다이쇼 천황이 병약한 데다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구실삼아 독단적으로 조칙을 내렸다. 이는 가쓰라가 스스로 내각총리대신에 앉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야마가타를 중심으로 하는 조슈 군벌의 전횡에 대한 야당과 민중의 분노가 일제히 일어나 이를 타파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성난 민중은 헌정 수호를 외치며 의회를 포위하고 정부계 신문사와 파출소를 습격하여 불태웠다. 가쓰라는 이에 맞서 의회를 해산시키려고까지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내란으로 치달을 위험성마저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50여 일 만에 사퇴하니 이를 '다이쇼 정변'이라 한다. 이 정변은 정당내각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가쓰라의 뒤를 이어 내각을 구성한 인물 역시 사쓰마 군벌의 해군대장 출신인 야마모토 곤베에였다. 그 역시 군비확장 계획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마침 해군이 독일의 지멘스사와 미쓰이 물산으로부터 수년 동안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폭로되었고, 이에 대해 전국의 상공업자들까지 가세한 민중과 야당 등이 다시 의회를 둘러싸고 군벌을 규탄하자 야마모토 내각 또한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증강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도 1914년 6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묻히게 되었다.

다이쇼 시대의 주된 사건으로는

1912 - 제1차 헌정옹호운동

1914 -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915 - 중국에 21개조 항목 요구

1918 - 쌀소동 하라 다카시의 정당 내각

1920 - 국제연맹에 가입 제1회 메이데이

192 1- 워싱턴 회의에 출석

노동 운동이나 농민 운동이 번창하게 된다.

1923 - 간동대지진

1925 – 치안 유지법 보통 선거

**Ⅱ.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 침략**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유럽대륙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슬라브계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드 대공 부처를 저격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에 책임을 물어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두 나라만의 충돌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끌어들이게 되고, 급기야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아시아까지 참전하는 역사상 초유의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니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일본도 영·일 동맹을 빙자하여 재빠르게 참전하였는데(1914. 8. 23), 그 역할이래야 중국 산동성에 있는 독일 조차지 공격과 독일령 남양군도 점령, 그리고 해양에서의 연합군측 기선 보호 정도였다. 일본이 참전한 실질적인 목적은 구미 열강이 아시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의 이익을 챙기고자 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필요 이상의 대군을 중국에 상륙시키고는 1915년 5월 7일,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해 21개조의 가혹한 요구 조건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압박하여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21개조란 산동성에서의 독점권, 여순·대련·남만주 철도의 권리 기간 연장, 한양·대야 등 광산의 철·석탄의 경영권, 중국의 군사·재정 기관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한다는 것 등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전쟁 중 유럽 열강이 아시아에서 후퇴하자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1915년에는 수출액이 7억 엔으로 늘었다. 1916년부터 4년간의 총 수출액이 54억 엔에 달했으니 이는 전쟁 전 10년분의 수출액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역 내용은 대폭적인 수출 초과로 바뀌어 1914년까지만 해도 만년 채무국이던 것이 1920년에는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또 무역량의 폭증은 일본을 일약 세계 3위의 해운 대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공전의 호황이 자본가를 양산하여 벼락부자가 된 '나리킨'도 많이 생겼지만 급격한 수출 초과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왔다. 게다가 대전 중 일시 후퇴해 있던 미·영 세력이 다시 복귀하고, 중국에도 민족자본 중심의 경공업이 성장하자 일본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많은 민중을 생활고로 몰아넣었다. 특히 농업 인구의 공업 부문에의 유입, 미곡상의 매점매석,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주 보호를 위해 미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쌀값이 급등했다. 1918년 7월에는 전년에 비해 3배가 폭등하여 각지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나리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중 에너지로 분출되었다.

**대중국21개조요구 對中國二十一個條要求**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월 18일 일본이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하여 중국에 제출한 강압적 요구.
1914년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고, 10월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이권을 몰수하였다. 이듬해 오쿠마 시게노부[大湛重信] 내각의 가토 다카아키[加珙高明] 외무대신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대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비밀문서로 광범한 이권의 요구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모두 5호, 21개 조항인데, 제1호는 산둥성의 독일 권익 양도와 철도부설권 요구 등의 4개조, 제2호는 관둥저우[關東州]의 조차기간 연장을 포함한 남만주와 동부네이멍구[內蒙古]에서 일본의 특수 권익의 승인 등 7개조, 제3호는 한예핑매철공사[漢冶萍煤鐵公司]의 철 ·석탄 사업에 관한 이권 이양 등 2개조, 제4호는 중국연안과 도서지역의 불할양(不割讓) 요구 1개조, 제5호는 중앙정부의 일본인 고문 초빙, 경찰의 공동관리, 병기구입과 철도부설에 관한 요구 등 7개조였다.
이 요구가 중국측에 전달되자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발하였고, 2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서도 비난하였으므로 4월 17일에 교섭은 중단되었다. 이에 일본은 5월 7일에 강압적으로 제5호의 내용 중 나머지는 제외하고 푸젠성[福建省]에 관한 항목과 1∼4호에 포함된 항목을 수정 없이 수락하도록 최후통첩을 발하여, 5월 9일 중국측은 국회의 동의 없이 모든 조건을 수락하였다. 5월 25일 이에 입각한 중 ·일조약이 체결되어 6월 8일 양국간에 비준서(批准書)가 교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뒤인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21개조의 파기(破棄)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으므로 중국에서 5 ·4운동이 일어났고, 1922년 워싱턴 회의에서 이 요구는 결국 파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강경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어 이후 대일 ·대중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쌀소동 하라 다카시의 정당 내각**

민중들의 헌정옹호 운동에 굴복해서 하라 다카시(1918년9월~1921년 2월) 내각이 등장하였다. 실질적인 일본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 불리던 하라 내각은 하라가 암살되시 전까지 불과 2년 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정당 내각이 비로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당 내각이 다양한 형태로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정옹호 민중운동으로 발전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은 요시노 등 지식인들만의 이론과 운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시민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민중운동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하나의 모범으로서 중용한 운동이 쌀소동으로 이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주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민중운동이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1918년부터 사회주의 러시아를 타도하기 위해 서구 각국이 간섭을 시작하였고 일본도 이에 편승해 데라우치 내각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결정하였다.

시베리아로 출병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건너 블라디보스토크로 대군을 보내야 하는데, 군대만이 아니라 쌀도 식량으로 함께 수송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쌀값이 올라갔다. 게다가 특히 지주와 쌀상인들의 매점매석 및 판매 중단 등으로 쌀값은 천청부지로 올라버렸다. 이렇게 해서 제1차세계대전 전에는 쌀 한 되에 12전이었던 것이 1918년 8월에는 50전으로 앙등하였다. 먼저 후지현 우오즈 지역의 어민 주부들이 쌀의 지역 외 이송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세 전국으로 확산되어 석달만에 36개 지역에서 7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데라우치내각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고자 했으나 9월에는 신문기자들이 정부의 안이한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데라우치 내각의 탄핵을 결의하는 등 운동은 한층 확대되어 갔다 9월 21일 데라우치 내각은 결국 총사직하게 되었다. 데라우치내각의 퇴진 후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내각 구성 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이온지가 이를 고사하여 하라 다카시에게 넘어갔다.이렇게 해서 1918년 9월 29일 하라 다카시 내각이 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파리강화회의**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나고 이듬해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 일본은 전승국으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5대국의 하나로, 하라 내각은 사이온지 긴모치 등을 회의에 파견했다. 회의에서는 영국·프랑스의 의향을 반영해서 독일로 하여금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여 약체화시키는 내용의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또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할 기관으로서 국제연맹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 21개조 요구로 중국이 인정한 산동성에 대한 독일의 권익을 일본이 계승하고, 또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양제도까지 위임통치령으로 획득하게 된다. 국제연맹은 1920년에 발족했고 일본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일본은 권익의 확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하라 수상 등 당국자들은 만족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세계 각지에서 높아가는 가운데, 조선과 중국의 반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이 고양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 중 일본이 중국대륙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서 미국·영국 등 열강이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3. 도시의 민주주의**

1919년~1920년에 걸쳐 도쿄를 중심으로 의회를 겨냥한 보선운동이 고양되고, 이는 오사카·교토·나고야 등 주요도시로 확대되어나갔다. 특히 1920년 2월 11일 도쿄 보선운동에는 적어도 3만 명이 참가했다. 이들 운동의 중심 멤버는 신진 변호사, 신문 기자 등이었고, 대도시에서는 학생단체나 우애회 등 노동운동단체도 등장했다. 이처럼 보선의 요구는 도시 중심의 유권자층이 일부 유력자에게 독점되던 종래의 정치체제를 변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보선운동의 고양은 하라 다카시나 정우회보다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쇠퇴일로에 있던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은 1921년 야마가타의 사망으로 분해되었다.

노동운동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사조가 고양되면서 활성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 종료기를 전후한 고양기에는 1개월 평균 파업건수와 참여인원이 약 40건과 5,670명으로 그 전의 1년분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호황으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 조직화가 진전된 노동자 측이 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공세를 가했기 때문이었고, 많은 경우 노동자측의 처우개선은 실현되었다.

하라 수상은 보선운동을 필두로 노동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고양되어 종래 일본의 사회질서가 크게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그것은 야마가타 계열 관료나 재계인사·대지주 등 지방명망가에게 공통된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20년 2월에 보선운동이 고양되어 국민당 등 야당이 보선안을 제출하자 하라 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에 대항했다. 선거 결과, 보선을 제창한 헌정당과 국민당 등 야당 후보자가 다수 낙선하여, 정우회는 중의원 총의석의 60.6%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하라 수상은 정우회 창설 이래 유례없는 거대 정우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선운동의 고양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다. 정우회가 대승을 거둔 최대요인은 제1차 세계대전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철도·하천 개수 등 적극 정책의 요구가 강해진 농촌 명망가층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다. 1920년 단계에서도 농촌에는 보선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조류가 미치지 못했고 이들 명망가층의 의향이 선거 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우회가 승리한 또 다른 요인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두려워한 재계로부터 엄청난 선거자금이 유입된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라 내각이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선거법으로 개정해놓은 것도 제1당 정우회의 대승에 기여했다.

총선거 이후 보선운동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더욱이 1920년 3월에 시작된 전후 불황 속에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자 측이 수세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5월 이후 파업은 격감하고 그 요구 또한 임금인하 반대, 해고수당 증액 등이 중심이었다.

**Ⅵ. 정당정치의 성립**

**1. 농촌의 민주주의**

도시의 보선운동은 1922년 초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주요 신문 9개지가 정계쇄신을 요구하면서 일치하여 보선 실현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이미 1920년 총선거 이후 농촌에서도 일부 청년들은 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마을마다 벗들을 모어 1920년 총선거에서 보선을 지지했다가 낙선한 정치가를 밀거나 보선을 요구하는 연설회·담화회를 열었고, 주요 신문들의 보선캠페인은 그들의 활동에 활기를 불러 넣었다. 이들 청년 그룹은 향후 제2차 호헌운동 때 치러진 1924년 총선거 당시 각지에서 입헌청년당을 결성하여 호헌3파 후보자들을 지원했다. 청년당의 중심리더들은 자작농·중소상인·신문기자 등 중간층 청년이었지만, 소작·피차별부락의 청년에서부터 경작지주 등 명망가층의 청장년까지 폭넓은 층을 당원과 지지자로 끌어 모았으며 청년당 간부 중에는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대전후의 불황으로 농촌의 공공사업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계층과 연령, 선거권 유무를 넘어서 정우회와 그 휘하의 명망가층의 정치지배를 변혁하고자 하는 일치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소작쟁의 건수가 1921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을 배경으로 이듬해인 1922년 4월 카가와 토요히꼬 등은 전국적 농민조합인 일본농민조합을 창립했다. 당초에는 15개 지부, 회원수 2백 명이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경지의 사회화, 소작입법 확립, 보선 등을 내걸고 청년당 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농촌의 민주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당시까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조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농촌에서도 1920년 전반이 되면 그 조류가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20년 전후부터 피차별부락에서도 청년들의 그룹은 책과 신문·잡지를 읽고 토론하는 학습회를 운영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등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어 차별에 대한 투쟁의식을 기르고 있었다.

전후 불황 속에서 농촌의 민주주의 조류가 확대되어가는 데 대응해서 보선 반대를 제창하는 등 여전히 보수성 짙은 제1야당 정우회 내에서조차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심인물은 요코타 센노스케와 다카하시 코레키요 등 개혁파였다.

이들의 개혁구상은 첫째, 정우회가 주장한 공공사업의 삭감·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재정 정리와 군축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당론을 보선 지지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많은 비(非)누진제 세금인 주민세를 경감하는 등, 사회 정책적 감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셋째로 나중에 언급하듯이 외교정책에서도 중국 내셔널리즘에 대응할 새로운 사고를 제시했다. 즉 만주 군벌과의 제휴를 약화시키고 중국 전역을 통일할 국민적 기반 위에 선 정권의 출현을 기대하며 그 정권과의 경제제휴를 강화하여 미·영고의 경제경쟁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정우회의 개혁동향과 전후해서 제3당 국민당이 1920년 초에 제2당 헌정당은 1921년 말에 당론을 보선론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쇄신을 개시했다.

**2. 호헌3파 내각**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 관동 일원과 야마나시·시즈오까에서 14만 여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57만여호의 가옥이 완전 붕괴되거나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 다음날 해군 장로 야마모토 곤베에를 수반으로 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발족하여 당면한 구원활동과 복구계획 작성에 정력적으로 돌입했다. 이 우연한 천재(天災)는 일본사회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피해지인 수도 도쿄와 요코하마 지방을 중심으로 국민사상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재난의 혼란에서 국민들의 반군(反軍)적 풍조는 약화되었다. 또 유언비어에 현혹된 일본인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학살했다. 다른 하나는 일본경제가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경제는 전후 불황에 휩쓸리긴 했어도 제1차 세계대전중의 호황과 국제수지의 대폭흑자가 축적되어 여유가 있었지만, 재난 피해와 복구에 따른 지출 때문에 그 축적의 태반을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일본경제의 정체는 차츰 심각해져가고 있었다.

이 와중에 고토오 심뻬이 내무상, 이누까이 쓰요시 체신상 등은 보선 실시와 함께, 나중에 치안유지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치안입법 구상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제1야당 헌정회, 제2야당 혁신구락부를 해체하고 신당을 결성해서 이를 중요한 권력기반으로 삼아 당내 대립 때문에 보선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던 정우회를 총선거에서 타도할 구상을 세웠다.

야마모토 내각의 동향에 자극을 받아, 요코타 센노스케 등 정우회 개혁파도 헌정회와 제휴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우회와 헌정회 모두 치안입법을 실시할 생각이었고, 이리하여 보선과 치안입법의 동시진행은 정계 중추의 공통된 생각이 되어갔다.

1923년 12월 말 야마모토 내각이 섭정궁 저격사건 때문에 문책 사직하자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의 추천으로 추밀원 의장이던 키요우라 케이고가 조각을 했다. 카토오, 야마모토, 키요우라 등 3개의 비정당 내각이 이어지자 정당 측은 낙담했고, 키요우라가 구 야마가타 계열 관료로서 귀족원을 배경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보선을 통해 정계쇄신을 기대하던 국민의 실망은 컸다. 그리하여 1924년 1월 18일 타카하시 코레키요(정우회), 카토오 타카아키(헌정회), 이누카이 쓰요시(혁신구락부) 등 세 당수는 정당내각을 확립하기로 합의하고 호헌3파를 중심으로 내각타도운동(제2차 호헌운동)을 개시했다. 정우회의 개혁노선에 반대해온 토꼬나미 타께지로오 등 보수파는 탈당하고, 1월 29일 정우본당을 창설, 키요우라 내각의 여당이 되었다. 키요우라 내각은 1월 3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전 과정에서, 앞서 서술한 대로 각지에서 청년당 등 중간층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체가 결성되어 도시락을 싸들고 와 호헌3파 계열의 후보를 응원했고 다수 민중의 지지도 얻어 제2차 호헌운동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호헌3파 계열과 정우본당이 다툴 경우 농촌의 대지주 등 명망가층은 정우본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1차 호헌운동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운동에 불과했지만 제2차 호헌운동은 선거전을 통해 농촌 구석구석까지 확대되어 종래의 명망가 지배 등 농촌의 정치구조를 뒤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가 있다. 선거의 결과는 호헌3파 286대 정우본당 109로, 호헌3파의 압승이었다. 총선거에서 패배한 키요우라 내각은 6월 7일 총사직하고 11일 제1당 헌정회 총재 카토오 타카아키를 수상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성립했다.

제2차 호헌운동은 중앙정치에서 정당내각을 성립시켰을 뿐 아니라 지방의 정치구조까지 변화시켰다. 청년당 운동에 참여한 중간층 이하 청년들이 수년간 지방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나중에 살펴볼 1925년 보통선거의 도입과 함께 정치와 정당의 기반을 대중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대중화된 정치기반은 중간층의 발언권을 증대시켰고 나중에 전시체제 하에서 국민동원조직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중정치 상황의 원형을 이루었다.

1925년 호헌3파 내각은 제2차 야마모토 내각 이래의 흐름에 따라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을 동시에 성립시켰다. 새 선거법에는 여성참정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 수가 약 4배로 확대되어 보선운동 참가자 대다수를 만족시켰다. 한편 치안유지법에는 종래의 치안유지법에 없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운동과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Ⅴ. 세계공황과 정당정치의 붕괴**

**1. 타나카 내각의 강경외교와 쇼오와 천황**

1920년대 중기까지 일본의 대(對)중국·대열강 협조외교노선은 ① 중국에서 민족주의운동이 고양되고 이를 배경으로 북방 군벌세력을 타도해 중국을 통일하려는 북벌의 움직임이 1926년 7월부터 시작된 것, ② 칸또오대진재로 피해를 입어 전후공황 이래 일본경제의 침체가 정착된 것으로 말미암아 동요하기 시작했다.

정우회에서는 전 육군상 타나카 기이치 신총재 하에서 일본의 불황탈출을 만주·몽골에서의 권익 확대와 결부해 생각하는 신(新)노선을 제시하였다. 경제 불황 속에서 1927년 3월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쇄도하는 예금인출소동이 일어나 헌정회의 제1차 와카스키 내각이 무너지자 정우회의 타나카 기이치 내각이 성립되었다. 타나카 내각은 금융공황에 대해 추밀원의 협력을 얻어 긴급칙령으로 3주간 은행예금 지불유예를 실시해 은행의 예금인출소동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이후 불황은 계속되었고 재정난 속에서 정우회의 적극정책 슬로건에 부합하는 철도 건설 등 공공사업의 투자확대는 거의 실현할 수 없었다. 또 보통선거 실시 후 정당이 중간층 이하 민중을 장악하기 위한 과제로 주목하기 시작한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극히 소극적이어서 성과는 거의 없었다. 타나카 내각은 노동·농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1928년 3월 15일 공산당 관계자 등 1천수백명을 일제 검거하는 등 탄압 중심의 정책을 취했다.

타나카 내각은 외교·경제정책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사회정책에서도 이렇다 할 치적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점차 상실해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천황은 타나카 수상에 대해 불신임의사를 표명, 타나카 내각은 1929년 7월 총사퇴했다.

**2. 하마구치·와카쓰키 내각의 한계와 쇼오와 천황**

1929년 7월 민정당의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은 금 수출을 자유화하리라는 국민의 큰 기대를 모으며 성립했다. 하마구찌 내각은 시정방침으로서 10대 정강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금 수출 자유화를 실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출 증진을 통해 일본경제를 불황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9년 10월24일 미국의 주식폭락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혼란은 종래의 경제상식을 뛰어넘어 세계공황으로 확대되었다. 세계공황은 정당정치가 갓 정착되고 영국·프랑스나 미국처럼 광대한 식민지나 국토·자원을 갖지 못한 일본에게는 너무나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이와 같은 경제·외교적 위기와 정당내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배경으로 하마구치를 사퇴시키고 이어 와카쓰키 레이지로오가 수상직에 오르게 되었다. 와카쓰키 내각 또한 정책 시행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내부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1931년 12월 총사퇴했다.

**3. 5·15 사건**

와카쓰키 내각의 뒤를 이은 것은 제2당인 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 내각이었다. 이누카이 내각은 조각 후 즉각 금 수출 금지조치를 재단행하여 금본위제에서 이탈했다. 이 조치는 공황 탈출을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공공사업을 실시한다는 적극정책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 국민은 이누카이 내각에게 공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타나카 내각 이래 정우회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도 강해서 내각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32년 5월 15일 해군 청년장교 일단은 백주에 이누카이 수상을 암살했다.(5·15사건) 이 결과 이누카이 내각은 무너지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정당내각은 일본에서 부활하지 못했다.